

연구보고 · 한국문화인류학 39-2 : 307 ~ 347(2006) 한국문화인류학회

〈주요개념〉 : 제주도, 잠수(해녀), 바다밭, 나잠(裸潛), 의례, 조상과 자손

바다밭(海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전통의 정치: 제주도 잠수마을의 나잠(裸潛)과 의례¹⁾

안미정*

1. 머리말

해안 마을의 앞 바다는 중층적 의미를 가진 사회적 공간이다. 이곳은 마을 주민의 생업 터전으로서 역사적 경험이 존재하는 생활공간인 동시에 국가의 법적 지배를 받는 ‘마을 어장’이다.²⁾ 근대적 법체계에 의해 마을 앞 바다는 국가의 공유지이지만 한규설(1993: 31)은 한국의 어촌계 고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 1) 이 논문은 제38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2006. 5. 19~20)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초고를 읽고 지적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 2) 이 글에서 해안 마을의 앞 바다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잠수들의 일터라는 맥락에서는 바다밭을, 수산업상의 공간을 의미할 때는 마을 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다만, 바다밭은 수면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해저의 대지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찰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우리 바다'라는 관념이 내재된 공간임을 지적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좁아진 어장의 손실을 국가는 '기르는 어업'정책을 장려함으로써 만회하려 하였으나 연안 양식사업의 활성화는 일부 마을 주민들에게 연안 어장의 오염에 따른 소득감소의 우려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분쟁이 야기되어 왔다.

한국의 농어촌을 비교한 한상복(1976: 88)은 농민의 토지와 달리 어민에게는 어장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바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이나, 바다를 점유하는 어로 체계(fishing system)들은 사회마다 다르며, 자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 제한하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는 영토권(territoriality)을 내세움으로써 자원 이용의 권리와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Palsson 1991: 49-53). 제주도 잠수(潛嫂)들의 경우³⁾ 물 아래의 세계, 즉 법적인 마을 어장에서의 수렵채집활동은 오로지 '나잠'(裸潛)의 방식으로,⁴⁾ 마을에 거

3) 한국과 일본에서는 바다에서 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캐는 여성을 흔히 '해녀' / '아마'(海女, あま)라고 한다. 제주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해녀, 잠수(潛嫂, 잠수), 잠녀(潛女, 잠녀)가 혼용되며, 한국의 제주 지역 외에서 잠수/잠녀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그러나 잠녀(潛女)는 일본 문헌에서도 나타난다(김영돈 1996: 47)). 이 글에서는 한국의 나잠업자를 지칭할 때는 해녀라고 표현하였고, 제주도의 경우는 '자맥질/물질하는 아주머니'의 뜻을 가진 '잠수'(潛嫂)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잠수(潛嫂)의 잠(潛)은 물 속에서의 작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해녀, 일본의 아마들과는 조금씩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있는 존재들이며, 현재 물질하는 제주 여성은 모두 기혼자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조사하였던 잠수마을의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말은 '잠녀'이며, 역사적으로 한국의 나잠업자들은 물질하는 여자(잠녀)라는 넓은 의미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

4) 잠수들의 '물질'은 물에서 하는 일(물일)의 의미를 가진다. 무래질(물애일)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있다. 이 일은 산소통과 같은 보조기구 없이 맨 몸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나잠(裸潛)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아마'(海女, あま)를 연구하였던 데이비드 플래쓰(1997: 502)는 '나잠'(裸潛)을 plain diving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나잠업자를 '트랙터를 가지지 않은 농민(소작농)'에 비유하였는데, 일이 단순해서가 아니라 산소통 없이 잠수(潛水)하기 때문이다.

주하는 여성들(곧 잠수회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즉 자원의 채취권이 '나잠할 수 있는 마을의 여성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잠수들은 바다 속의 대지(大地)를 또 하나의 생업공간으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바다(물) 위에서 고기 잡는 어민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도 없다. 또한 한 마을의 잠수라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의 위치가 변화하므로 모든 잠수들을 동질적 존재로 본다면 그 안의 다양성을 보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과거의 한 시점에서는 분명히 적응적일 수도 있었을 이러한 가치관과 행위 패턴은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의 현실과는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정병호 1996: 38). 제주도의 잠수는 오랜 시기 동안 지역의 생태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들에 조응하며 그들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중세의 부역에서, 해안 마을 여성의 보편적 생업으로, 다시 시장경제체제와 접목된 수렵채집 생산활동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다.

한국 해녀의 연구는 제주 잠수 연구의 틀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이것은 해녀에 대한 관심이 '독특한 제주 지역 여성의 생업방식'이라는 관점에 기인하는 경향으로 보인다.⁵⁾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민속학적 관점에서 민요와 어구, 작업 관행 등에 대한 연구(김영돈 1996, 1999; 고광민 1996; 이성훈 2005; 좌혜경 · 고창훈 · 한림화 · 문무병 외 2006)가 있었으며, 생리학적 관심(Hong and Rahn 1967)과 이 외에도 잠수들의 열악한 지위(강대원 1973), 공동체성(한림화 · 김수남 1987)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잠수들의 경제활동을 제주도 근대 경제의 변동 과정에서 고찰한 경제학에서의 연구(진관훈 2004)도 있다. 이들 연구는 면접과 사료, 통계자료, 실험, 사례수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잠수들의 노동의 힘겨움과 여성으로서의 강한 생활력, 경제적 기여를 잘 보

5) 한국의 해녀들의 작업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안미정 2006: 245-281).

여 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 속에서 잠수들은 '잠수'라 불리는 모든 여성들을 동질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이들을 마을 내외부의 집단들과의 관련성 없이, 고립적이고 정태적인 집단으로 비치고 있다. 한국 인류학에서의 연구는 1970년대 말 제주도의 한 부속도서에서 여성인류학적 시각으로 시작되었으며(조혜정 1982), 문화생태학적 관점에서 마라도의 잠수에 대한 연구(이기욱 1992), 여성의 일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유철인 1998)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연결선상에서, 본 연구자는 잠수들을 해안의 생활자로서, 그리고 어민과 다른 '물 아래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생활세계에 접근코자 한다. 터너(Turner)가 많은 갈등 상황들은 높은 빈도의 의례행위와도 상관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듯이(1969:10), 잠수들은 그들의 집단적 의례인 "줍녀굿(잠녀굿)"에서 '물 아래의 세계'를 의례적 장치에 따라 해마다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원들은 생활세계에서 모색해 왔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 글에서는 의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주도의 한 잠수마을의 바다를 생태적 환경과 함께 사회정치적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연안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마을, 잠수/비잠수들 사이에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갈등의 양상을 기술할 것이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힌 공간을 잠수들은 어떻게 그들의 영역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문화적 장치로서 줍녀굿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여성들의 일이며, 무지(無知)한 여성들의 일, 불쌍한 여성들의 일이라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 사회 인식에서 나아가 더 이상 잠수인력이 재생산되지 않는 '화석화되어 가는 여성의 일'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들의 생활세계/전략을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물(강, 호수, 바다)과 접해 있는 많은 사회에서 다른 집단에 대한 상호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얻는 한 사회의 점유방식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은 학위 논문을 위한 현지조사 — 2005년 4월부터 1년간 — 에 바탕하며, 좁혀국은 2002년부터 매년 참여관찰해 온 것을 토대로 하였다.

2. 잠수마을의 나잠(裸潛)과 사회생태학

1) 물질 자격과 자원의 전용권(專用權)

바다는 달의 인력에 의하여 하루 두 번 바닷물 수위가 달라지므로 낮 동안 만조에서 간조로 바뀌는 때를 이용하여 잠수들은 “물에 든다.” “물에 든다”라는 것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이므로 그들의 작업을 구체적인 행위로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물에 들기 때문에 ‘잠수’(潛嫂)라 불리는 것이므로 “물에 든다”라는 말은 잠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법에서 물에 드는 것은 입어(入漁)라고 하며, 잠수들의 물질은 나잠어업방식의 마을 어업에 해당한다. 마을 어업은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제8조 제8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한하여 면허”하고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이같이 잠수들의 작업공간은 법적 구속력을 받는 공간이며, 지역 주민으로 조직된 어촌계가 도, 시, 군의 면허를 받음으로써 마을의 잠수들이 물질하고 있는 것이다. 물에 들기 위한 법적 자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마을 어촌계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어촌계원인 자만이 잠수회(潛嫂會)에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 자격 외에 비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 있다.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조건은 그녀가 마을에 정착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수회에서는 입회하려는 자에 대한 최종적 심의와 가입비를 논하게 되는데 물질기량이 좋을수록 가입비도 올라간다. 이미 '가꾸놓은 바다'에 새로 들어온 신입자가 채취하게 될 물량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바닷물의 변동에 맞춰 물에 드는 것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 연안 조수의 일정한 주기성을 이용하여 작업 패턴을 형성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바닷물이 변하는 패턴에 음력을 대비하여 주기화하였는데, 그것이 조수력(潮水曆), 사람들은 흔히 '물때'라고 부른다.⁶⁾ 해안 마을에서 물때는 농사일과 그 외 다른 일들의 시기, 가내 성별노동의 분업, 노동력의 동원방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한 가구, 넓게는 해안 마을의 노동 패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작업할 수 없는 시기 동안에는 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고, 미용실을 가거나, 제주 시내에 있는 자식들을 방문하고, 특히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다른 마을의 밭일에 '구지'(組)를 만들어 다닌다.

넓은 바다에서 한정된 물때의 시간에 맞춰 잠수들은 가능한 자신의 아는 모든 생태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물질을 한다. 만약 그녀가 물질할 곳을

6) 김녕리 잠수회는 한달에 8일씩 2번에 나누어 작업을 한다. 물때에 따른 작업 패턴을 아래의 표로 작성하였다.

음력	물때	작업	음력	물때	작업	음력	물때	작업
1	여덟물	-	11	서물	6일	21	막물	9일
2	아홉물	-	12	너물	7일	22	아근죄기	10일
3	열물	-	13	다섯물	8일	23	한죄기	11일
4	열한물	-	14	여섯물	-	24	훈물	12일
5	열두물	-	15	일곱물	-	25	두물	13일
6	막물	1일	16	여덟물	-	26	서물	14일
7	아근죄기	2일	17	아홉물	-	27	너물	15일
8	한죄기	3일	18	열물	-	28	다섯물	16일
9	훈물	4일	19	열한물	-	29	여섯물	-
10	두물	5일	20	열두물	-	30	일곱물	-

잘못 판단하였다면, 물질기량이 뛰어나더라도 하루 일을 허탕치고 말 것이다. 물질의 기술은 단지 물 속에 얼마나 숨을 잘 참을 수 있는지 물 속에서 자신의 몸을 적응시키는 노하우(knowhow)를 익히는 것만이 아니다. 호흡이 긴 잠수가 반드시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도 아니다. 해저의 지형도, 조류와 풍향의 방향과 세기 등을 아우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광민 1996: 71; 유철인 1998: 114). 자신의 물질기량, 자연의 계절적 변화와 해양자원의 생태학적 특성, 그리고 많이 잡으려는 ‘욕심’과 다른 비슷한 기량을 가진 잠수들과의 경쟁 — 좋은 여(암초)를 선점하기와 같은 — 등 “물에 든다”라는 말에는 생태학적 지식, 몸의 기술, 채취에 대한 의지와 경쟁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해녀, 즉 아마(あま)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플래쓰 1997: 501-502).

현재 제주도의 잠수들이 가장 많이 채취하는 해산물은 소라이다.⁷⁾ 법정 금채기(7월~9월)는 소라의 산란기로 이 외의 기간 동안 연중 채취되는 ‘물건’이다. 소라를 집중적으로 잡기 시작한 것은 면 옷(물소중이 혹은 속곳)에서 고무 옷(검은 고무 작업복)으로 바뀌기 시작한 1970년 초반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미역을 채취하였다. 소라의 시장 확대(일본 수출)와 기술의 변화(고무 작업복의 등장)는 소라의 채취량을 증대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고무 옷은 기존 면 옷에 비해 작업시간을 약 2.6배 가량 증가시켰다.⁸⁾

그러나 과도한 어획으로 연간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1991년 10월부터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자율적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를 시행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자원관리 대상이 되었다(장대수 2002: 1). 제주도 북

7) *Batillus comutus*, 연체동물문 복족강 원시복족목 소라과(Family Turbinidae)에 속하는 종이다. 조간대로부터 수심 20미터 사이의 암초에 서식하고 주로 제주도에 분포한다(장대수 2002: 1).

8) 물소중이로 하루 1시간 30분 하던 작업시간이 4시간으로 증가하였다. 김애자(김녕리, 63세) 씨 인터뷰 자료(2006. 1. 10. 김영자 씨 댁에서).



[사진 1] 잠수들의 소리 옮기기(2006. 8. 20)

동쪽 해안 마을의 김녕어촌계는 소라의 안정적 산란을 도모하기 위하여 6월부터 9월까지 금채기를 설정하여 물질을 금지하고 있다. 이때부터 잠수들은 마을의 주산물인 마늘과 양파를 수확하고 동네별로 우뭇가사리를 채취한다. 여름 동안에는 밭농사(콩, 조, 녹두, 참깨 등)에 전념하지만 물질을 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한가한 때이기도 하다. 이맘때가 되면, 소라들은 검은 현무암의 송송 뚫린 갯가의 바위틈, 구멍들 틈 속에서 자란다. 간조 때가 되면 물이 빠진 바위 구멍들마다 가득히 자리 잡은 작은 소라들을 볼 수 있다. 마을 안에 있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동안 매년 물때에 맞춰 잠수들은 조를 편성하여 “바당(바다)을 지키러” 간다. 이것은 소라를 해수욕객과 낚시꾼, 물질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잡아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촌계 자체 내에서 모든 잠수들이 참여해야 하는 ‘공동일’이다. 소라를 지키는 더 적극적인 일은 ‘소리 옮기기’이다. 하루 낱을 정하여 갯가의 작은 소라들을 더 먼 바다로 옮겨버리는 것이다. 허리에 맨 ‘찰리(작은 바구니)’에다 소라들을 담고서는 발이 젖지 않을 만큼 바닷물 가까이에서 소라를 가능한 멀리, 물 속 더 깊

숙한 곳에 숨어 살도록 던진다. 물질을 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도록(사진 11). 이 일 역시 공동일이다. 소리를 잡지 않는 잠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참여하지 않은 잠수가 있다면 잠수회는 명단을 작성하였다가 그녀에게 ‘벌(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75세 이상의 고령의 잠수들의 불참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2) 잠수(潛嫂)에 대한 이중적 맥락

2005년 제주도(청)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도내 5,650명의 잠수들이 있으나, 30세 미만은 2명에 불과하며, 전체 구성에 85.4%가 50세 이상이다(제주도 2005: 33).⁹⁾ 젊은 잠수층이 형성되지 않는 데에는 여성의 교육, 취업 기회의 확대, 환금작물의 재배에 따른 잠수노동력의 이탈, 물질에 대한 천시함의 사회적 인식 등이 지적되어 왔다(조혜정 1982; 한림화, 김수남 1987; 권귀숙 1996; 김영돈 1996). 제주도의 산업경제와 도민들의 생활사에서도 이들의 경제적 기여는 보편적으로 인지되는 사실이다(강대원 1973, 2001; 안미정 1998; 진관훈 2004). 일반적으로 잠수/해녀는 해안 여성의 직업으로 일컬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나잠업(裸潛業)을 산업사회의 ‘직업’으로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¹⁰⁾

과거 해안 마을 여성들이 물질을 보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도내에서 물질은 ‘전통’적인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잠수들의 감소는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 초기부터 상품경제에 편입되었던 잠수들의 노동이 단지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하였던 가내노동의 일환으로 귀속됨으로써 근

9) 이 통계에 성별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극소수의 남성 나잠업자도 물질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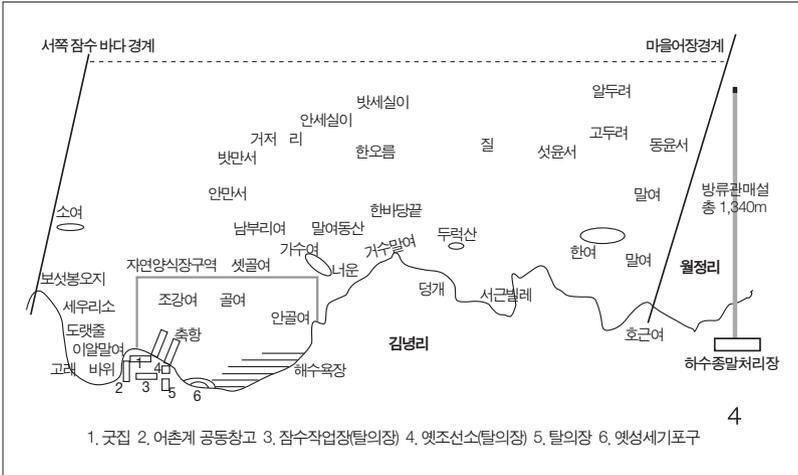
10) 현재 잠수들의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적 여성의 직업으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한 사정과 연관이 있다. 아울러 봉건왕조에 해산물을 진상하던 천직이었다는 것과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의 전형으로서 여겨지며, 젊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상품화되기도 하는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이미지들이 혼합되어 있다(안미정 1998: 50). 현재 제주도 내에서 나잠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혼남녀들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아 물질이 기혼자들의 생계수단으로서 여겨질 뿐 산업사회의 한 '직업'으로서 미혼남녀에게 고려되는 일은 아니다. 고령화되어 점점 줄어드는 제주 잠수들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제주도(청)는 고무 잠수복 무료 지원, 의료 진료비 혜택, 잠수상 시상, 마을 어장 내 종패 살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제주도 2005; 북제주군청 2005; 남제주군청 2005).

3) 잠수마을의 바다밭

제주시로부터 22km 떨어진 김녕리는 도내에서도 잘 알려진 잠수마을이다. 김녕리에는 고려 시대 현청이 있었으며, 1897년 “제주읍(현 제주시)의 다음기는 큰 마을로 일명 천하 대촌(天下 大村) 김녕마을이라” 불렀다(박수양 1986: 131).¹¹⁾ 제주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서쪽 어귀에는 국가 지정 어항인 한개 포구(김녕항)가 있으며, 동쪽으로 들어오는 어귀에도 옛 성세기 포구가 있다. 두 포구는 모두 물(육지)으로 왕래하던 상선들이 드나들던 곳이다. 그 사이에 바닷가 쪽으로 민가들이 한데 모여 있으나 1,300여 년 동안 동-서 김녕으로 나뉘어 왔다. 2000년 이전에는 폭 3미터 정도의 작은 골목길을 경계로 모든 공공기관이 2개씩 있었다. 마을의 잦은 이 익분쟁으로 말미암아 몇몇 유지들은 옛 천하대촌의 명성을 되찾고 마을

11) 2005년 12월 기준으로 김녕리 총 인구는 2,505명으로 남자 1,205명, 여자 1,3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어촌계원은 공식적으로 640명이며, 이 중 잠수는 160명이다(리사무소, 어촌계 집계 자료).



[그림 1] 김녕리 동쪽 잠수회의 바다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마을 주민 투표로 2000년 1월 1일 행정상 하나의 마을로 통합되었다.¹²⁾ 마을을 동서로 가로 지르는 새 도로에는 통합을 상징하는 탑과 리사무소 건물이 있지만, 마을의 중심은 여전히 옛 도로를 따라 우체국, 과출소, 오토바이 수리점, 단란주점, 식당들이 있고 중앙에 초등학교와 어촌계사무실, 농협건물이 나란히 있다. 동-서 어촌계도 마을의 통합과 함께 하나의 어촌계로 통합되었다. 하부조직으로 어부회(선주회)와 잠수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잠수회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잠수회는 공식적으로 하나이지만, 동-서 잠수회가 별도로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물질하는 바다 사이에도 경계가 지켜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해산물을 출하하고 있다.

두 잠수회가 통합되지 않은 것은 동쪽 잠수회에서 바다의 통합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¹³⁾ 동쪽의 잠수들(100명)은 서쪽(60명)보다 거의 두 배 정

12) 강정윤 씨의 인터뷰(2005. 5. 28. 000현장사무소).

13) 동쪽 바다는 서쪽보다 훨씬 넓다. 김녕 마을 어장의 총 면적은 457.52ha(1,383,998

도의 소리를 채취한다. 물론 잠수의 수가 많은 동쪽에서 소리의 채취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잠수들의 작업이 가능한 것은 너른 어장과 더불어 자원이 풍부한 질적으로 좋은 어장이기 때문이다. 동쪽 바다가 더 좋은 어장이라는 것을 잠수들은 두 바다간의 해저지형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굴곡이 심한 서쪽의 해저지형보다 동쪽은 완만한 지형이 바다 멀리까지 펼쳐져 있다. 이 같은 조건은 수심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면적이 그만큼 넓다는 것과 물 속에서의 작업 환경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이러한 해저지형의 차이를 바다와 연육(連陸)하고 있는 육상의 지형적 차이로 이해하였다. 서쪽은 높낮이가 불규칙한 대지들인 반면, 동쪽은 완만한 대지가 그대로 바다 속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는 서쪽이 동쪽보다 비옥하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 맥락은, 자원이 풍부한 동쪽 바다, 바다와 연육한 토지, 비옥한 서쪽의 토지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쪽 잠수들이 바다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옥한 서쪽의 토지는 사유지(私有地)로서 공유(共有)가 불가능한 반면, 동쪽의 좋은 바다는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바다를 통합한다면 두 지역간에 바다와 토지의 균형적 호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 공유하는 것은 동쪽의 바다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토를 가진 동쪽 잠수들이 서쪽의 옥토(沃土)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환을 위한 등가(等價)가 성립하지 않는 이치에서이다.

잠수들의 인식 속에서 바다와 토지는 서로 얽혀 있는 생활공간이다. 바다를 통합하지 않는 것은 동쪽 잠수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다와 토지의 생산성에 대한 균형적 호혜관계를 고려함으로써, 두 지역간 생산성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바다와 토지의 공유와 사유라는 서로 다른 점유양식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는 것

평)이며, 동쪽 바다는 332.3ha, 서쪽 바다는 125.22ha으로 동쪽 바다가 2.7배 가량 더 넓다.

을 알게 해 준다. 그리고 잠수들에게 바다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육상과 연육한 생산성을 가진 영역으로서 하나의 '밭'으로 인지되고 있다. 호흡을 고른 후 물 속으로 머리를 숙이는 순간, 바로 보이는 물 아래의 대지는 소라, 오분자기, 해삼, 문어, 전복들이 살고, 미역, 천초들이 자라나고 있는 바다의 밭이다.

3. 마을 어장의 개발과 갈등의 구조

바다(자원)을 둘러싼 사회조직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수협, 어촌계, 잠수회 등 다층적이다. 그러므로 마을 어장은 여러 조직들이 여러 목적에 따라 바다를 이용, 점유할 수가 있게 된다. 한 공간에서 엮히는 여러 집단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서로 중첩되거나 상충되어 갈등을 야기한다. 집단 갈등의 문제는 집단의 통합과 분리에 대한 관심을 주목시키지만, 통합과 분리를 일으키는 갈등의 긍·부정적 기능의 논의는 갈등에 대한 가치판단을 개입시킨다. 그러나 갈등의 상황을 만약 집단성원들이 표출하고 있는 가치들의 경합으로 파악한다면, 집단(의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에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마을 어장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갈등의 상황을 다음 두 사례를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마을 어장의 사회적 드라마

(1) 양어장 사건

2004년 도내 어업별 조수입 통계를 보면, 양식어업은 2,042억 원, 어선어업 2,188억 원, 마을 어업 216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다(제주도, 2005: 34-40). 육상양식장은 국가의 기르는 어업정책에 따라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해안 마을 잠수들

과 종종 분쟁을 일으켜 왔다.¹⁴⁾ 어류 양식장의 배수가 마을 어장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김녕리의 육상양식장은 4개소 있으나 모두 옛 서김녕리에 있다. 옛 동김녕리에도 육상양식장을 하려는 개인 사업자가 2001년 마을 어촌계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잠수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 일을 마을 사람들은 ‘양어장 사건’이라고 불렀다.

이 사건의 전개는 어촌계장이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양어장 설립을 위한 동의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발단이 되었다. 총회의 의결이 대의원제로 된 것은 160명 잠수들의 과반수를 의결방식으로 채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대의원들은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각 동네에서 고르게 참여하도록 인원을 배정하고 있었다. 이들을 ‘총대’라 부르며 당시 총대들 중에 잠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양식장 설립에 대한 어촌계의 공식적 의사에서 잠수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어촌계의 또 다른 구성원인 ‘얕은계원(비잠수자)’들은 양어장이 들 어옴으로써 생기는 부수적인 이익 분배를 고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양어장의 설립 예정지는 해수욕장 인근으로, 어촌계의 잠수회에서 조성하고 있는 바다 자연양식장의 구역으로 배수될 것이었다. 총회 후 잠수들은 “양어장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K씨(전직 잠수회장, 57세)가 맡았다. 또한 추진위에서는 동의 공문을 작성해 준 계장을 탄핵하려고 하였다.

2001년 여름, 추진위로부터 탄핵을 위한 서명을 중용받고 있던 잠수회장 G씨(57세)는 자신의 집으로 계장과 추진위원들을 불렀고, 그 자리에 다른 추진위원들보다 일찍 참석한 K씨는 계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가 여전히 잠수들의 편이며, 동의 공문을 쓰게 된 자초지종을 알게 됨으

14) 제주도의 253km 해안에 290개의 육상양식장들이 가동되고 있다. 일부 폐업하거나 종묘생산을 위한 양식 등의 29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61개소는 모두 넉치를 기르는 양어장이다(제주도 2005: 38). 이 수치는 약 0.9km마다 1개의 양어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로써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나중에 참석한 추진위원들은 강하게 탄핵을 주장하던 K씨의 갑작스런 '변심'이 계장과의 사전모의라고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날 오후, 양어장 설립자의 '포기각서'가 도착하여 잠수회장은 저녁에 잠수들의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양어장 설립은 무산되었으나, 이제 잠수들은 계장을 탄핵하는 일에 찬성인가 반대인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쪽파',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대파의 핵심인물이었던 G씨는 자신이 잠수회장으로서 계장을 탄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마을 유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탄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K씨는 계장이 여전히 잠수들의 편임이 확인된 바에 그가 '마을 사람이므로' 탄핵하여 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처음부터 계장의 탄핵을 주장하던 잠수들(쪽파)은 계장이 양어장 설립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잠수들을 등진 것이며, 더군다나 K씨의 변심은 신의를 저버린 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잠수회의 좁너곳에 불참하거나 미온적이었다.

2004년부터 좁너곳을 하는 곳집도 바뀌었고, 계장, 잠수회장도 바뀌었다. 신입계장이 선출된 후에도 1년 동안 각각 두 그룹은 두 군데에 저울을 놓고 자신들의 해산물을 따로따로 채었다. 대파의 잠수 몇 명은 쪽파에 속한 친구, 친척의 소라 망사리를 자신 쪽으로 잡아 당겨 서로 합쳐 보려고도 하였다. 신입계장도 통사정하여 쪽파를 설득하였다. 쪽파는 두 개의 저울을 합치는 조건으로 "계장이 저울을 잡는다(본다)"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2005년 1월부터 계장이 저울을 잡았고, 모든 잠수들이 곳에 참여하였다. 저울 잡는 자가 계장이어야 한다는 쪽파의 주장은 대파와 쪽파 양쪽 모두에게 공정할 수 있는 자, 즉 어느 한쪽으로 관계가 기울지 않는 자만이 저울을 잡음으로써 물질한 노동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려 한 것이다. 이들이 신입계장에게 요구한 것은 두 파의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저울의 균형이었다. 저울은 이들을 통합하는 수단이었고, 이들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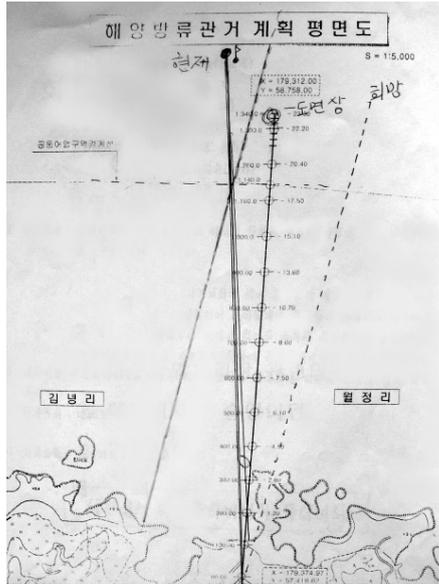
의 균형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저울이 하나가 된 후에도, 좁너긋을 새 곳집에서 한 후에도 대과, 쪽과의 경계는 지속되었다. 탈의장의 사용, 작업배의 승선 자리, 겨울밭일의 '구지'를 만들기, 관리선(잠수를 나르는 작업배) 선장의 탄핵 문제에서도 그 경계는 가라앉았다가 때때로 부상(浮上)하였다. 그러나 2005년 가을, 이웃마을에 들어선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관 매설작업 때문에 잠수들은 또다시 시설업체, 행정기관에 대해 사업 반대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2) 하수종말처리장 사건

김녕리의 동쪽에 위치한 이웃 마을은 월정리이다. 1998년 월정리에는 북제주군청에서 시행하는 동부 하수종말처리장이 이 마을 잠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재정적 보상, 하수관을 가능한 마을 밖으로 — 결국 김녕리 쪽으로 — 묻는다는 조건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5년 여름에서야 김녕 잠수들은 이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하수종말처리장 건물이 지어진 후인데도 그것은 월정리 땅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바당 지키기'하면서 잠수들은 바다에 띄운 빨간 부표들이 길게 늘어선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부표는 방류관 매설 공사로 생긴 부유물을 막기 위해 오락방지망을 매단 것이었다. 이 사업은 군청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김녕리를 포함한 제주도 북동부 지역의 생활하수들을 모아 정화시킨 후 바다로 배수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쉽게 '똥통'이라고 불렀다. 이 사업의 '평면도'에 따르면, 하수의 방류지점은 마을 어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수방류관에서 나온 담수가 밀물을 따라 마을 어장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그 경계지역은 김녕 마을 어장에서 가장 질 좋은 우뚝가사리가 자라는 곳이었다.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하여 잠수회장 및 마을 유지들(리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5년 9월 26일 어촌

계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설감리단장이 하수처리시설을 오염을 최소화한 공법으로 시설하고 있으며, 방류관은 직선으로 매설하여 김녕 어장을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어촌계 총대로 참여한 관리선장(잠수작업배의 선장)은 평면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면상의 방류지점은 실제 김녕리에 더 가까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업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직선으로



[사진 2] 하수종말처리장 평면도
(어촌계 회의자료 2005. 9. 26)

로 나갔다”라는 것은 육상에 지어진 건물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일직선일 뿐이라고 하였다(이 직선은 바다로 나갈수록 어장경계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장의 주장은 해도(海圖)를 중심으로 선을 그어야 하며 그것이 ‘직선’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평면도’에 자신의 주장에 따라 선을 직접 그어서 보여 주었는데, 그 선은 두 마을 사이에 설정된 어장 경계선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었다(사진 2).

2005년 11월 13일(4물), 읍 체육대회가 마을에서 열리던 날, 관내 모든 어촌계에서는 하루 동안 작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날을 빌려 비교적 젊고 노련한 잠수들(중군, 상군)이 하수관이 매설된 바다 속을 직접 보기로 하고 배를 타고 나갔다. 하수관 매설이 어장 경계를 침범하였는지를 육안으로 물 위에서는 가늠하기 힘들므로 —다각도로 형성되기 때문에— 물 아래의 지형들을 보고 주장하려 한 것이다. 경계지역에 이르렀을 때, 검은

돌덩이와 포크레인을 실은 두 대의 배가 한창 작업중이었다. 이것을 본 잠수들은 작업배로 다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고, 더군다나 뿌연 흙탕물이 어장 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잠수들은 나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였다).

뒷날(5월) 아침, 어촌계 간사는 흙탕물 사진을 인쇄하였다. 잠수들은 물에 들기 위해 작업장에 모였으나, 전날의 사건으로 계장, 간사와 함께 모두 트럭에 나눠 타서 현장사무실로 갔다. 초겨울 바람과 비가 날리어 두터운 옷에 머리엔 모자와 스카프를 한 70여 명의 잠수들이 현장사무소의 현관 앞으로 모였다. 모였다는 것만으로 시위였다. 모두가 현관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2명의 경찰이 와서 중재하였다. 건물 옆 컨테이너 사무실에 군청 직원과 시설 공사측(5명)과 잠수측 대표자 7명(대과와 쪽파의 핵심인물들이 마주 앉았고, 긴 탁자의 한쪽 끝에 경찰, 어촌계장과 간사, 그리고 연구자가 있었다.¹⁵⁾ 잠수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돌아가며, 전날의 흙탕물 사진을 보여 주며, 물질 작업하는 기간에 공사를 강행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바다가 자신들에겐 생명과 같다는 것, 탁상행정만 한다는 것,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내 분노에 차서 말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물질하여 먹고 사는지, 어떻게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있는지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바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잠수들이 어장의 오염을 자신의 생물학적 몸으로 느끼는 위험뿐만 아니라, 한 가구의 가구주, 생계자로서 느끼는 위험이며, 이때 잠수들은 그들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개별적인 몸이 아니라 '사회적인 몸'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시공업체측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배석한 경찰과 어촌계장, 간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

15) 경찰은 연구자에게 누구인지를 물었다. “어촌계 간사입니까?”라는 물음에, 연구자는 당시 저울 보는 일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준간사”라고 대답했다. 어촌계의 공식적 체계에서 준간사라는 직위는 없다.

무런 결정도 나지 않았다.

찬 겨울바람에 비까지 뿌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참담하게 하는데 뽕족한 수 없이 잠수들은 다시 트럭을 타고 잠수 작업장으로 모였다. 젊은 잠수가 항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었고,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논의를 대책위에 위임하기로 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J 씨(56세)는 협상 자리에 참석하였던 잠수들 중에 자신만 빼고 모두 양어장 사건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하였다. 협상장에서 대파와 쪽파는 모두 자신들이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한 입장이었다. 이날 협상장 테이블은 연안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안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이었다. 다시 뒷날(6월) 공사업체에서는 하루 조업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으며, 그 보상금의 책정은 일일 소라 채취량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2) 갈등의 구조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들과 일으키는 마찰은 이해관계만을 다루므로, 적절한 보상조건에 따른 타협안이 제시되면 갈등은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주도 내의 분뇨처리장 시설은 해안 지대의 생업에 영향을 끼치므로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전경수 1995: 311).

양어장 사건에서 보듯이, 집단의 갈등은 외부 사업의 물리적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파생된 성원들 사이의 충돌이 오히려 갈등을 지속, 증폭시킬 수 있다. 한 집단성원들이 결속하거나 또는 분리와 구조를 파괴하는 선택은 구성원들이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는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위 두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구조에 주목하여 잠수회가 분파된 의미, 잠수들의 바다밭에 대한 관점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잠수회의 도덕성과 정치성

잠수들의 분파는 단지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른 기세다툼이나 파벌경쟁인 것인가? 그들 사이에서 경계가 지속될 만큼 충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잠수회의 분파는 양어장 시설 반대 때문이 아니라 계장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탄핵해야 한다는 잠수들의 주장은 계장이 어촌계의 대표로서 동의 공문을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계장으로서는 어촌계 대의원들의 의결한 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로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러나 잠수들은 계장이 '그의 직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행했다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자신들의 대표'가 동의 공문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였다. 비난은 실질적으로 동의한 대의원들이 아니라 대표자인 계장에게 쏟아졌고, 그의 직위를 박탈하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잠수들은 공식적 절차라 할지라도 계장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잠수들은 양어장이 생긴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고, 대의원제의 의결에 의사를 반영할 수 없었던 잠수들은 총회의 의결을 무효화시켜 버렸다. 대표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호간의 관계를 파괴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장의 탄핵은 그것에 대한 책임 추종이었으며, 도덕적 체벌을 의미하였다. 이런 와중에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추진위원장 K씨가 혼자 입장을 바꾼 것은 그녀 또한 계장과 같은 뜻이 된다는 것으로써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

계장의 탄핵, 추진위원장 K씨에 대한 비난의 맥락에는 어떤 집단의 장(長)에 대한 잠수들의 관점을 보여 준다. 그것은 한 집단의 장(長)으로서 그들의 직위에는 이미 타인에 대한 지배/대표의 힘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확인을 통해 힘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감투 자체가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씌워 주는 것이 감투라는 맥락이다. 이 일은 공식적 직위라 할지라도 대표성(힘)은 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관계는 대표와 성원 간의 법

규범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공식, 비공식적 교감/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다. 잠수들의 항의는 공식적 관계/지위라 할지라도 성원들과의 공식, 비공식적 관계의 지속적 재확인 속에서 공식적인 힘이 발현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마을 안에서의 전통적인 사적(私的) 관계는 국가의 공적인 제도 속에서 경쟁과 타협의 관계를 맺어 왔으며, 적응과 저항의 전략적 차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김광억 2000: 38-40). 잠수들의 이러한 대응은 국가 제도에 의한 공식적 관계가 비공식적 (혹은 전통적) 관계를 전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쪽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장은 탄핵되지 않았다. 또한 잠수들은 그들의 조직이 내분됨에도 어느 한쪽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포기/양보하지 않았다. 대파가 계장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그가 “마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K씨가 입장을 바꾼 이유 가운데에서, 그리고 대파인 G씨도 모두 이 일로 인하여 한 마을기관의 대표자를 잠수회가 탄핵하였다는 것도, 다른 마을에 알려졌을 때 마을의 대외적 이미지를 생각할 때도 탄핵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¹⁶⁾ 따라서 잠수들의 대파, 쪽파 간의 경계는 그들의 대표자에 대한 도덕적 처벌이냐, 마을의 입지를 고려하는 정치적 선택이냐를 두고 형성된 것이다.

잠수회는 경제적 생업공동체인 동시에 도덕적 생업공동체이기도 하다.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바다로부터 얻은 자원은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하며, 이러한 분배원칙은 그들의 의례에서 한 조상의 자손이라는 상징적 관계로서 정당화된다. 공식적으로 잠수회는 국가의 수산정책의 지배를 받는 어촌계의 하부조직이지만 또한 마을 여성들의 자치조직이다. 이러한 중첩된 성격은 마을 어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잠수들이 어떤 선택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대파와 쪽파의 분리는 도덕적, 정치적

16) K씨의 인터뷰(2005년 5월 1일 자택), G씨의 인터뷰(2006년 1월 12 자택) 내용.

공동체로서 어느 한 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잠수회의 두 선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업공동체로서 견지해 온 관행과 규범들, 어촌계의 하부조직으로서 고려해야 하는 마을의 대외적 입지와 수산정책, 잠수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내부가 분리되어,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하나를 상실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대파는 마을 전체적, 대외적 입장을 고려하였고 그 바탕에는 잠수회에게 돌아올 다른 집단들의 비난을 감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쪽파는 잠수들과 관계성을 파괴한 대표자에게 처벌을 주려고 하였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개별 잠수의 관점으로부터 바라본다면, 대파와 쪽파의 각 선택은 모두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파와 쪽파의 분파 형성은 잠수회가 마을/잠수회의 정치적 입지와 대표자에 대한 도덕적 처벌이라는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파와 쪽파 사이의 긴장관계는 잠수회를 분열, 와해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잠수회가 도덕과 정치를 조율, 승화해야 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2) 바다로부터 보는 관점

두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차이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지적이 해안생활자의 '바다로부터 보는 관점'에 자리매김함으로써 도출되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첫째, '직선'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관리선 선장은 '평면도'의 오류를 육지에서 바라볼 때와 해도(海圖)에 따라 바라볼 때 달라지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육상의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가, 해도를 기준으로 하는가의 문제로, 바다, 육지에서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바다에서 직선은 다각도에서 가능하고 육상과 달리 경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특성으로 미뤄볼 때, 농경과 해양 어로문화는 단일한 앵글(angle)으로써 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바다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서, 시설업자와 행정

기관에서 제시하는 ‘평면도’에서 두 마을간 바다 경계는 수면 위에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분명히 나뉜 두 개의 영역이 되지만, 마을 주민들의 관점에서서는 매일 조수의 흐름이 들고 나가는 하나의 입체적 공간으로 인지한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문제시되었던 시기가 바다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부터인 것을 보면, 이웃마을의 육상과 달리 이웃마을의 바다는 곧 자신의 바다, 자신의 생활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영역임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마을 어장에 대한 개념적 차이이다. 잠수들의 작업공간은 법적 구속력을 받는 공간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과거로부터 살아온 생활공간으로서 이것이 ‘우리 바닷(바다)’이라는 관념을 형성하고 있는 토대이다. 게다가 잠수들에게 물 아래 세계의 변화는 생활세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처럼 육상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해안생활자들의 바다에 대한 관점은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주의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해안마을의 앞 바다는 이 공간을 이용하는 개인과 집단, 그들의 제도와 관행을 아우르지 못하고 단지 생태적 대상물로만 바라본다면, 어장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집단 이기주의로 쉽게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법적으로 어장은 지도상의 구획으로 ‘임대공간’이며 ‘무주물’(無主物)이지만, 비잠수자들에게는 비가시적 세계—물아래—를 잠수들은 매년 의례를 통해 미역, 소라, 전복들이 자라는 밭으로, ‘요왕할망(女神)의 세경(世耕)’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자원의 권리와 영역의 상징: 좁너굿

앞서 제시한 두 사건을 통해, 연구자는 잠수들이 연안 바다를 둘러싸고 여러 사회적 집단들과 갈등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잠수들과 연안 바

다의 생태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는 이들의 생업에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들이다. 다양하게 얽힌 연안 바다의 여러 관계들이 의례공간에서는 주인(잠수들)과 손님(방문자들)의 관계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잠녀굿이 그들 내부의 통합적 기능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들과의 관계를 그들이 어떻게 재형성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례는 자연의 주기성, 전통의 단순한 재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거나 저항하거나 또는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형성(construction)”(김광영 2000: 8)되고 있는 잠수들의 생활세계의 실천적 공간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례 전반에 걸쳐 세 가지 내용을 전개하려고 한다. 첫째, 바다밭의 생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잠수들의 굽녀굿(잠녀굿)은 해양 농경, 자원 재생의 실천적 의례라는 것을, 둘째, 조상(바다)의 자손의 논리는 잠수들간의 통합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자원에 대한 권리 주체를 명확히 하며, 셋째 연안 바다에 대한 영역화, 잠수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례라는 것이다.

1) 해양 농경의 실천: 씨드림(播種)과 씨점

굽녀굿은 옛 동김녕 잠수들의 유일한 집단적 의례이다.¹⁷⁾ 동쪽 잠수회는 제물과 손님 대접용으로 쓰일 해산물 채취를 ‘공동’으로 한다. 이때의 공동이란 다함께 작업한 하루의 작업 물량을 개인별 소득으로 분배하지 않으며, 작업이 모두의 의무가 됨을 뜻한다. 의례는 잠수들의 작업장 창고 맞은편에 있는 굽집에서 열린다.¹⁸⁾ 잠수들은 의례를 하는 이유가 ‘무사안녕, 해산물의 풍요’에 있다고 말한다. 혹은 “요왕할망(龍王할머니, 바다 속의

17) 김녕리 바다가 동-서로 나뉘어 있듯이 잠수회의 의례도 따로 이뤄지고 있다.

18) 굽집이라고 한 이유는 일년에 단 한 번만 이 곳을 위해 문이 열리며, 당에서 행해지는 각종 비님의 형태는 이곳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女神)한테 정성을 올려야' 바다에서 "무사고(無事故)하고" "식구들 편안하게 해줍센" 하는 뜻에서 하고 있다. 잠수들은 의례가 '요왕할망'을 위한 곳이라고 말한다.¹⁹⁾

이것은 불교와 사머니즘이 결합된 서쪽 잠수회의 해신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곳을 하는 음력 3월 8일에 "요왕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날에 하게 되었다. 이날은 바닷물의 변동이 거의 없는, 잠수들의 표현에 의하면 "빠졌던 물도 금방 드는", '조금 중에서도 조금', '한죄기'인 때로, 지상 깊숙이 바닷물이 밀려드는 때이다. 이날 "요왕문이 열렸다"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반사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다. 잠수들은 '요왕세경(龍王世耕)'으로 들어가서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뿌리게 되는데 이것을 '씨드림'이라고 한다. 나이 들고 "몸 비리지 않은(부정 타지 않은)" 두 명의 잠수가 곳을 동서로 나누어 뛰어나니며 바닷가에 '좁씨'를 뿌리는데, 두 잠수의 땀박질 뒤로 심방과 소미(무구를 치는 심방의 보조자)들이 징, 팽과리 장단을 치며 따라가고, 나머지 잠수들은 박수를 치며 달음박질을 응원한다. 손님맞이와 설거지하던 젊은 잠수들도 이때만큼은 모두 함께 씨드림을 구경하고 환호한다. 뿌려진 좁씨는 바다 속에서 전복, 소라, 오분자기, 문어, 해삼, 톳, 우뭇가사리로 자라나 잠수들이 수확하게 될 것이다. 하필 좁씨인 까닭은 그것이 "겉질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서" 재생의 의미

19) 강소전(2005)은 좁너곳을 성세기당의 한 당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까닭은 곳하는 날이 이 신의 생신날이며, 요왕문이 열려 좌정하였다는 <성세기당본풀이>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a. 잠수들은 모두 그들의 조상신을 여신인 '요왕할망(물 아래에 있는)'이라고 주장하는 점, b. 좁너곳에서는 당곳에서 나타나는 상중하 단풀이 없다는 것, c. 당 설립 이전에 곳이 행해졌었다는 심방의 설명(김○보심방), d. "좁너들의 숨비소리를 들으며 성세기하르방이 좌정"하였다는 설명(서○실심방), e. 김여문 응(93세, 김녕리의 증조부(미역상인, 만호)가 이 당을 설립하였다는 구술을 통해, 좁너곳은 성세기당 설립 이전부터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의 한 곳으로 귀속시키기보다는 무속에서 넓은 의미의 조상, 잠수들이 관념하는 조상, 구태여 바다밭에서 곳을 행하고 있는 목적 등 잠수들의 생활세계를 아우름으로써 이 곳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본다.

를 담고 있기 때문이며, 뛰어다니는 것은 유희적 성격과 함께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보인다. 잠수들이 풍년을 기대하고 또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씨드림이라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례에서 씨드림은 잠수들이 요왕할망의 자손으로서 행하는 역할행위이며, 이 실천적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은 의례의 주체적 위치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준 것을 그들이 뿌렸으므로 그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어서 행하는 '씨점'은 굿집 한가운데 펼쳐진 돛자리에 나머지의 씨앗을 뿌린 후 바다밭의 어느 지경에서 풍흉이 생길 것인지 알아보는 과정이다. 다음의 대화는 2006년 4월 5일, 심방과 잠수들이 돛자리에 뿌려진 씨를 보며 나눈 씨점의 일부이다.²⁰⁾

20) 대화의 내용을 표준말로 풀이하였다.

- 심방: 동쪽 바다에 가에서 우뭇가사리가 많이 나오네요!
- 잠수들 중 누군가: 갓우뭇가사리가 좋았지!
- 심방: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서 하수관이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물줄기가 이상하게 터지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쓸려갈 것 같습니다. 물이 먼 바다로 흐를 것 같아요. 바다의 물 조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암초바위)를 자꾸자꾸 얹어버리고 있구나. 바다 암초가 드러났다가 어떤 땐 없어졌다가. 전복은 양식장 앞쪽으로 아주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서쪽 바다 경계선엔 그다지 물건이 없어요. 작년엔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먼 바다에 것들이 (갯가로)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한여경계에는 뭔가가 어찌든지 생겨나겠습니다. 그쪽 물 조류가 끌어 당겨서 ... 덩개와 서근빌레 사이에 바다 아래쪽이 너북빌레 있어요? 너북빌레에는 조심하세요. 전복으로 언뜻 보이긴 해도 그게 전복이 아니!(너북빌레는 바다 속에 펼쳐진 바위 형태의 표현.)
- 강순녀: 거기 요왕할머니가 있는 텐데?
- 심방: 그러니까 언니들이 알아서 조심해요. 소여(작은 암초) 아래 가늘게 긴 암초가 있어요?
- 강정자: 있어! 거기 김영순이 잘하는데.
- 심방: 올هن 넉넉하겠어요. 고기는 가을 어장에 목차게 하겠습니다. 고사를 두 번 지내세요. 동쪽 바다는 히라쓰(고기 이름)가 날 것 같습니다. 우뭇가사리 채취하는 바다에서 물에 들 때는 조심하세요. 나도 조합원이지만은 물에 들 때 조심하세요. 씨움이 누군가... 119로 실려가든가 조심하세요.

- 심방: (뚝자리에 뿌려진 씨들을 살펴보며) 동쪽 바닷으로 코우미가 막 남수다!
- 잠수들 중 누군가: 코우미가 좋았주께!
- 심방: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허멍 나가부난 물줄기가 이상하게 터점수다. 알더래 끄심직 험직허우다. 물이 먼바당더래 내침직 허우다. 바당이 물 조류가 틀러부난. 여를 자꾸자꾸 얹어부럼수다예. 바당여가 났당 어떤 뎨 어서졌당. 전복은 (자연) 양식장 앞쪽으로 훗설 이심직 허우다. 서쪽 바당 경계선엔 그다지 물건이 어수다. 작년엔 태풍이 어서부난 먼바당에 것이 올라오지 안 햄수다. 한여경계(동쪽 마을어장 경계지역)엔 무시것이 어떻게뎨 붙어가켜. 그쪽 물 조류가 끄성 어뎨... 덩개광 서근빌레 사이에 바당 아래가 너북빌레 이수과? 너북빌레엔 조심험서. 전복으로 언뜻 보여도 그게 전복이 아니!
- 강순녀(58세): 거기 물할망이(요왕할망) 이신딘디?
- 심방: 게난 언니네가 알앙 조심허여. 소여 아래 소랑허게 길죽헌 여가 이수과?
- 강정자(59세): 이서! 거기 김영순(동료잠수)이 잘허는 디!
- 심방: 올힌 녀크허쿠다. 고기는 가을 어장에 목차게 허쿠다. 고시를 두 번을 지넙서. 동바당은 히라쓰가 남직허우다. 우미바닷 물에 들 때 조심험서. 나도 조합원이주만은 물에 들 때 조심험서. 싸움이 누게가... 119로 실려가든가 조심험서.(2006. 4. 5. 굿집, 필자의 강조)

위 상황에서 뚝자리는 '바다 속의 밭'으로 연상되고 있다([사진 3]). 씨점은 잠수들이 씨를 뿌렸다는 실천적 행위의 결과를 알아보는 연회적인 의도인 동시에 이 과정에서 심방과 잠수는 바다밭의 상황에 대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수들은 우뭇가사리가 자라고 있는 동쪽 바다의 물 아래 상황을, 심방은 그 지경에서 새롭게 발생할 조류의 흐름에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다. 심방의 담화에는 자원의 분포지역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다밭에 생길 변화를 미리 주지시키며,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잠수들 각자의 판단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심방과 잠수들은 바다밭에서 벌어질 미



[사진 3] 즈녀곳의 씨점(2006. 4. 5)

래의 상황을 상상하고 예견하며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한 바다밭의 상상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조상-자손의 친족관계는 잠수들의 자원에 대한 세속적 권리를 성화(聖化)시켜 주고, 정당화한다. 그리고 권리의 기원이 조상인 요왕할망으로부터 나오므로 요왕할망에게 “정성을 올려야 한다”라는 그들의 관념에는 자신들이 바다에서 가져온 물건들에 대한 보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씨드림과 씨점은 잠수들이 왜 해안가에서 씨를 뿌리는 의례를 행하는지, 그 의도를 가장 활동적으로 집약하여 나타내고 있는 제차(祭次)인 것이다. 따라서 즈녀는 잠수들이 파종(播種)하여 풍요를 얻는다는 상징적인 실천행위와 씨앗을 준 조상에 대한 정성(보상), 무(巫)의 예언적 기능(占)이 조화를 이루는 해안 생활자들의 해양 농경과 자원 재생의 의례인 것이다. 이처럼 파종하였다는 실천적 행위 외에도 자원 수확에 대한 권리가 잠수들에게 귀속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요왕할망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2) 통합과 구별의 논리: 조상과 잠수(潛嫂)

의례에서 심방과 잠수들의 담화방식은 조상-자손이라는 친족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잠수들이 대과와 쪽파로 나눠진 이후, 2002년 4월 20일, 굿을 하던 심방은 재물을 굿집 밖으로 내던지며 잠수들에게 “한 불턱에 술 두개 (술 두개 놓고) 앉았다며 비난을 퍼부었다.²¹⁾ 긴장한 원로 잠수들과 계장, 잠수회장(당시에는 G 씨)이 연신 엎드려 절을 하고 두 손으로 빌며, “잘못해수다(잘못했습니다)”를 반복했다. 조상의 질책에 자손들은 반성과 용서를 빌었고, 조상이 자손이 하는 물질의 힘겨움을 위로하면 자손들은 고개를 떨구거나 눈물을 흘렸다. 아래의 내용은 당시 초감제(굿을 위해 만신을 모셔오는 제차)에서 심방이 하였던 사설의 일부이다.²²⁾

…(굿 내력을 말함)

상불턱에 상잠녀, 중불턱에 중잠녀, 하불턱에 하잠녀

상잠녀, 중잠녀, 하잠녀 삼월 초순부터 몸정성, 요왕질 치고

이 바다에 오곡씨를 요왕세경에 강 받았

일년 12달, 전복, 오분작, 멩게, 해삼, 우미, 툷, 보말씨 하영 농사되게

21) 불턱은 흔히 잠수들이 물질을 준비하는 바다가의 작은 공간을 일컫지만, 본뜻은 화 툷불자리를 의미한다(한림화 2006: 37). 또한 불턱은 한 집(家)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한 집에 술 두개가 있다는 비유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22) 아래와 같이 표준말로 풀이하였다.

상불턱에 상잠녀, 중불턱에 중잠녀, 하불턱에 하잠녀/ 상잠녀, 중잠녀, 하잠녀 삼월 초순부터 몸 정성, 요왕질 치고/ 이 바다에 오곡씨를 요왕세경에 가 받아서/ 일년 12 달 전복, 오분자기, 문어, 해삼, 우뭇가사리, 툷, 고동씨 많이 농사되게/ 해녀들 망사리(해산물 넣은 그물자루) 가득하게 했습니다./ 작년 요왕굿(잠녀굿을 말함) 해서 군대 간 자손 조심하라고 해서/ 요왕 굿은 일 막아주고/ 다른 바다에 양어장, 해녀들이 바다를 지키려고, 이 바다를 지키려고/ 살려고 하면 화가 아니 나고 싸움이 아니 남니까/ 작년 3월 올해 3월까지 살림나서 사람 에 태울 일로/ 한 탈의장 안에서 저 울 두 군데 놓고 하니/ 어쩔 수가 없이 이 곳은 어떻게 할까 했습니다마는/ 이 자손들이 어디 가서 빌며 살아왔겠습니까?

해녀들 망사리 고득하게 허여수다
작년 요왕굿 해서 군대간 즈순 조심허랜허연
요왕 굿은 일 막아주고
다른 바당에 양어장, 해녀들이 바당을 지키젠, 이 바당을 지키젠
살젠허민 용심 아니나고, 싸움 아니 납니까
작년 3월 올해 3월까지 살림나난 사람 태을 일로
혼 탈의장 안에서 저울 두 밧디 허난
어쩔수가 어시난 이 굿은 어떻 허코 해수다마는
이 즈순들이 어디 강 벌언 살아(와)수과?(생략).

(2002. 4. 20. 굿집, 필자의 강조)

여기에 조상은 바다라는 자연 대상에 투영된 신으로서, 요왕할망과 잠수는 일터를 매개로 한 신화적 관계이며, 조상신의 권위를 터신에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巫)에서 일반적으로 조상의 개념은 사람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존재이며, 이때의 조상은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그 영향력이 한정되어 있다(이용범 2001: 214-215). 그러나 '줍녀굿'의 조상은 특정 씨족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으며, 자손과 비혈연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 다르다. 그럼에도 잠수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동등한 지위(자손)로 묶고 있는 이 추상적 통합체로서 조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상적인 조상은 어떻게 자손들을 향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제주도의 여러 <조상신본풀이>에서 조상은 직접적인 혈연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중심적 구실을 하는 인물은 여성이다(김현선·현용준·강정식 2006: 55). 잠수회의 성원들은 혈연 외에 지연,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며, 생업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잠수들이 엮드려 절을 하며 그들의 분열에 대해 조상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의례에서 규정한 자손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의례는 신화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조상을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권위자로 등장시키

고 있다. 김성례(Kim 1989: 153)는 제주도 샤머니즘 연구에서 불운하였던 신화적 영웅들이 의례를 통해 조상이라는 서민적(popular) 개념에 응축되어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혼 탈의장 안에서 저울 두 밧디 허난”이라는 언급은 대파와 쪽파가 따로 저울을 사용하였던 사실에서 연유한 것이며 “한 불턱에 술 두개를 놓은” 상황과 같은 것이다. 제주도의 가족/친족 연구에서는 한 집(家)을 구성하는 단위가 취사단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최재석 1984: 21; 김혜숙 1999: 83). 즉 한 집이란 한 불턱을 가지고 있는 원리인데, 여기서 한 집에 술 두 개가 걸려 있다는 것은 조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손들의 비정상적인(abnormal)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이 자손들이 어디 강 별언 살아(와)수과?”라는 물음으로써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의 일터가 어디인가를 반문함으로써 조상을 버릴 수 없는 자손의 위치를 (조상에게) 설득하고 있다.

결국 조상-자손의 관계는 바다밭을 통해 맺어지는 것이며, 이 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자손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잠수들은 그들의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그 극복을 의례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에는 그들의 통합, 결속을 도모하는 것 외에도 술 두 개가 걸리게 된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잠녀곳은 비잠수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물 아래의 세계를 지상에서 펼쳐 보이는 의례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요왕맛이’는 물 아래의 세계를 재연하고, 그들의 조상을 맞이하는 제차로써 ‘물 아래 조상의 현현(顯現)’은 자원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재확인시켜 준다. 왜냐하면 조상이 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자원의 서식환경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물 아래로 내려가서 채취해 올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손이란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례는 ‘몰질하는 사람만이 요왕 할망의 자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의례를 바닷가에서 하는 까닭과

물 아래의 바다밭을 지상에서 펼쳐내는 것은 조상의 터를 재현함으로써 '신화의 실재' 혹은 '상상계의 실재'를 펼쳐내고 있는 것(조홍윤 2001: 247)이며, 그러한 신화의 사회적 실재화(實在化)가 잠수들의 자원에 대한 권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바다밭을 둘러싼 갈등과 자원 고갈의 위기감 등 내외부적 요인들과 직면한 잠수들은 자신들의 생활경험의 역사가 투영된 '우리 바다'의 관념과 국가의 공유지라는 개념적 모순 속에서, 조상의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3) 전통의 정치

2006년 4월 5일, 한 해의 갈등 속에 다시 돌아온 음력 3월 8일 좁너굿이 열렸다. 마을 안의 남성 유지들,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이 흰 돈봉투를 들고 내방하였고, 그들의 발길로 음식을 접대하는 작업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좁너굿을 왜 매년 하는가를 물었을 때, 잠수들은 “옛날로부터 전통적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통'은 산업기술의 발달과 세계시장경제로의 편입에 의하여 위기를 겪는 생업집단이 지속적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의미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뒤르켐(1992: 514)은 의식(儀式)이 조상들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지켜진다는 말에 대해 의식(자체)의 권위와 사회적 산물로서 전통의 권위를 구분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의식이 만드는 물리적 효과 때문이 아니라, 신도들을 과거에 충실하게 하고 집단의 규범적 특징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기능주의적 시각을 보여 주었다. 비록 전통의 권위가 집단의 규범을 보존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규범을 보존하는 데에 신도들이 동원하는 전통의 의미는 고정되거나 단일한 것이 아니라 동적(動的)이고 생성되며 실천적이다. 변화, 갈등 혹은 위기의 시기에 의례는 연속성과 공동체감과 안정성의 인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

지 않게 된 것일 수 있다. 의례가 표면적으로 과거와 동일한 의식을 답습하더라도 의례의 거행이 갖는 성격과 그 맥락 모두에 따라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홍스봄 외 2005: 214-215).

그렇다면 잠수들이 매년 좁너굿을 거행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심방에게 의뢰하여 제물을 올리고, 한복을 입은 잠수회의 회장단들, 잠수가 아닌 사람들에게 — 마을의 유력자, 도청, 군청 수산 관리들에게 — 해산물(소라, 문어, 성게, 해삼, 미역, 오분자기)을 대접하며, 바다 속 조상과의 신화적 친족 관계의 담화방식, 파종하는 실천적 행위와 연회는 어떤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말리노프스키(Malinowski 1961: 366-368)는 트로브리안드 제도 사람들의 조개목걸이로 만들어지는 칼로마(kaloma) 조개에 대한 시나케타(Sinaketa)의 전설을 소개한 바 있다. 시나케타 사람들은 내륙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멀리 바다로 나가 칼로마를 숨겼으며, 그 결과 시나케타 사람들만이 어떻게 잠수(潛水)를 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는 이것이 칼로마에 대한 시나케타 사람들의 독점(monopolises)을 뜻한다고 보았다. 시나케타 사람들의 신화와 요왕할망의 자손으로서 잠수의 위치는 바다 자원에 대한 권리(소유)를 지속하고 상징하는 문화적 실천전략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잠수들의 일상적인 물 아래의 세계, 그러나 비잠수자(非潛嫂者)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곳에서는 육상에서 가시화(可視化)된다. 더욱이 바닷가에서 굿을 펼치는 것은 자원의 풍요를 위한 파종의 목적과 해안 바다가 그들의 영역(territory)임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잠수들의 작업방식인 나잠은 단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작업 패턴을 구분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그 방식으로 일해 온 경험의 역사가 부여하는 권위성이 내포된 말이기도 하다. 그 권위의 토대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해 온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데에 있다. '전통'은 흔히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치는 데 중요한 지원으로 동원되기도 한다(권숙인 1995: 424). 잠수들은 물질로부터 받는 물리

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고통을 곳에서 위무받으며, 신화적 관계로부터 부여받은 '물질하는 자손의 위치'를 통해 사회적으로 마을 어장/자원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비잠수자들에게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의례를 통해 얻는 전통의 힘만으로 잠수들이 나잠방식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진보를 채택하지 않으려는 것은 잠수들의 방만함 때문이 아니라 해안 마을 경제체제 속에서 공동의 의미를 가진 하나의 자원분배방식으로 선택/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소통을 매고 하면, 더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지만 그런 기대로 나잠기술이 퇴보(퇴출)되는 상황과 맞바꾸지는 않는다. 이미 그들은 많이 고령화되었고 자원 고갈로 인한 소득 감소의 문제는, 작업방식을 전환함으로써 더 많이 잡을 수 있겠다는 계량적 수치보다 자신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바다에 다닐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해석한다. 조금씩 잡더라도 좀더 오랫동안 바다밭에 다닐 수 있는 방식을 고수하려는 것이며, 모두가 많이 가져갈 수 없다면 모두가 적게 가져가는 자원분배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방식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이 일에 대한 '전통적' 시각으로 인한 새로운 인력의 투입을 어렵게 하지만, 한편 잠수들 공동의 생활논리는 시장 경제논리로부터 해양자원을 보호하는 이념적 보호막이 되고 있기도 하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도의 한 해안 마을에서 일어난 마을 어장의 갈등과 잠수들의 의례를 살펴보았다. 마을의 앞 바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사업자, 마을 어촌계의 잠수들과 계원들 등 바다의 이용방식, 소유 주체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층적 사회공간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연안개발사업에서 바다는 육상 중심의 시각에서, 수면 위를 구획

함으로써 나누는 개발의 대상으로서 다뤄지고 있는 반면, 마을 주민들에게서는 생활경험으로 형성된 일터로서, 바다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며, 특히 잠수들에게는 물 아래의 세계가 또 하나의 밭이라는 관념으로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바다에 대한 여러 집단들의 점유와 이해 관계의 충돌 속에서 잠수들은 의례를 통해 연안 바다의 자원에 대한 재생을 기원하며, 공간을 지속적으로 영역화하는 상징적 정치의 장임을 살펴 보았다. 바다 속의 여신과 잠수들의 조상-자손의 관계는 물질하는 자손에게 자원 권리가 있으며, 연안 바다는 그들이 농경하는 바다의 밭이라고 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나잡의 방식과 지속되고 있는 집단의례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하지 않은 행위 유형으로 생활방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단순히 과거의 것을 반복, 재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힘을 빌어서 창조적으로 행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 실천전략이다. 특히 의례에는 현실적 갈등과 위기를 투사시키고 있으며, 조상-자손의 신화적 관계는 단지 상상 속에 있는 허구적 관계가 아니라 마을 어장(자원)을 둘러싼 실제적 관계이다. 아울러 이것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한 방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잠수들은 '전통적' 방식으로 해양자원을 수렵·채집하지만, 그럼에도 국제적 시장경제의 체제 속에서 가격경쟁의 영향을 받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조응,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해안 마을의 생활자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적인 사회 조건과 불가분한 여성들의 생업집단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또한 제주 잠수의 문화는 해안 경제의 메커니즘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바다를 이용해야 하는 개발사업과 바다에서 살아가는 잠수들의 문제는 단지 경제적 효용가치와 정치적 공리주의의 관점 혹은 개발 보존의 논리로 귀속시킬 수만은 없는 것이다.

■ 참고문헌

강대원

1973 『海女研究』, 제주: 한진문화사.

2001 『濟州潛嫂權益鬭爭史』, 제주: 제주문화.

강소전

2005 “제주도 잠수굿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고광민

1996 “해녀 기술,” 『제주의 해녀』, 제주: 삼화인쇄사, pp.51-80.

권귀숙

1996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 회학』 30: 227-256.

권숙인

1995 “아이덴티티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28: 407-443.

김광억

2000 “전통적 ‘관계’의 현대적 실천,” 『한국문화인류학』 33(2): 7-48.

김영돈

1996 “해녀의 특이성과 연구방법,” 제주도 편, 『濟州의 海女』, 제주: 삼화인쇄사, pp.15-30.

1999 『한국의 해녀』, 서울: 민속원.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2006 『제주도조상신본풀이 연구』, 서울: 보고사.

김혜숙

1999 『제주도 가족과 팥당』,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뒤르켐, 에밀(노치준 · 민혜숙 역)

1992 『중고 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박수양

1986 『金寧里郷土誌』, 명성종합인쇄.

안미정

1998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6 “마을어장 자원의 채취방식과 공존,”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 서울: 민

속원, pp.245-281.

유철인

1998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한국문화인류학』 31(1): 97-118.

이기욱

1992 “마라도 주민의 적응전략,” 전경수 편, 『한국어촌의 저발전과 적응』, 서울: 집문당, pp.15-60.

이성훈

2005 『해녀의 삶과 노래』, 서울: 민속원.

이용범

2001 “한국 무속에 있어서 조상의 위치,” 『民族과 文化』 10: 193-215.

장대수

2002 『제주도산 소라, *Batillus cornutus*의 자원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정병호

1996 “한국 지식사회의 중앙 중심성의 극복: 지방화시대의 사회운동의 과제,” 『한국문화인류학』 29(1): 37-62.

전경수

1995 “통시와 분뇨하수처리장: 환경문제와 생태민속지,” 『한국문화인류학』 28: 291-316.

조혜정

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상복 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서울: 심설당, pp.143-168.

조홍윤

2001 “한국무(巫)의 신화적 성격,” 『民族과 文化』 10: 245-250.

좌혜경 · 고창훈 · 한림화 · 문무병 외

2006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서울: 민속원

진관훈

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제주: 각.

최재석

1984(1979) 『濟州島의 親族組織』, 서울: 일지사

플래쓰 데이비드(유철인 역)

1997 “환경에 대한 적응: 일본 헤녀(あま)의 경우(Fit Surroundings: Lessons From the Ama),” 『耽羅文化』 18: 499-507.

한규설

1993 『共同漁場과 漁村: 그 制度와 生産을 中心으로』, 서울: 참한.

한림화

2006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서울: 민속원, pp.21-105.

한림화 · 김수남

1987 『제주바다 潛嫂의 四季』, 서울: 한길사.

한상복

1976 “농촌과 어촌의 생태적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8: 87-90.

홉스봄, 에릭 외(박지향 · 장문석 역)

2005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Hong, Suk Ki and Hermann Rahn

1967 “The Diving Women of Korea and Japan,” *Scientific American* 216(March): 34-43.

Kim, Seong-Nae

1989 *Chronicle of Violence, Ritual of Mourning: Cheju Shamanism in Korea*, Ph.D. Thesis, University of Michigan.

Malinowski, Bronislaw

1961(1922)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New York: E.P.Dutton & CO., INC.

Palsson, Gisli

1991 *Coastal Economies, Cultural Accounts: Human Ecology and Icelandic Discourse*,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Turner, Victor

1969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 Structure*, New York: Aldine de Gruyter.

〈자료〉

남제주군청

2005 『해양수산현황』, 제주: 남제주군 해양수산과.

북제주군청

2005 『해양수산현황』, 제주: 북제주군 해양수산과.

제주도

2005 『해양수산현황』, 제주: 제주도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김녕어촌계, “회의자료,” 2005년 9월 26일자.

Research Report

〈key concepts〉 : Jeju Island, *jamsu*(women divers), maritime-gardens, conflicts, ritual, tradition.

Social Conflicts and Politics of the Tradition Regarding the Maritime-Gardens:

Plain Diving and Ritual of Women Divers in Jeju Island

An, Mi-Jeong*

This paper explains social conflict among seashore village *jamsus* (plain women divers) over the right to use maritime gardens on the sea bottom. The conflict is presented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ritual in Jeju Island, from the viewpoint of the seashore villagers. Their maritime garden is a kind of social space with dual meanings, as a living space reflecting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villagers, and as a fishing space legally governed by the nation. The place is a public area, but the villagers conceive of it as “their-own-sea.” It is also a living space under the water, invisible from the land. The territory under the sea is a ‘maritime-garden’ where the woman divers hunt and gather seafood. Only coastal resident women have rights to the maritime resources and they composes a *Jamsu-hoe* (*jamsu* association).

The *jamsus* recognize the problem of sea pollution as not only a biological danger to the human body but also as a crisis of the house — a sociocultural danger. The *Jamsu-hoe* is a moral as well as an economic community. The maritime resources

* Ph.D. candidate,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Hanyang University.

must be shared with its members because the maritime-garden is a common property. This principle of distribution is justified by the relationship of ancestors and descendants revealed in the shamanist ritual (*Jamsu-Kut*). Outsiders' development of the coastal area has caused social conflicts within the *jamsu* association. The conflict shows that the competing values among its members are more important than external factors. The fission of the *Jamsu-hoe* into two separate groups is not destruction or disorganization of the group, but a moral and political selection of one set of values over the other.

Jamsu-Kut is a collective ritual of the *jamsu* annually observed. It is a space for the integration of the members since it symbol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an ancestor and his descendants, predicated upon mythological kinship between the sea god and the *jamsu*. In addition, it is a symbolic political space where the divers strengthen their identity and their rights to maritime resources, asserting themselves against non-divers such as other villagers, fisheries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 The maritime-farming ritual includes prayers for the prosperity of the resources, symbolized by the scattering of seeds in the coastal area. The practical action of seeding demonstrates that the resources of the maritime gardens belong to the women of the *jamsu*. The idea that their ancestor (dragon grandmother) exists under the water reflects ecological conceptions of environmental resources. Furthermore, it indicates that her descendants are only those *jamsus* who have a skill of catching resources under the water.

The plain diving and the 'traditional' ritual are not simple repetitions of the past, but cultural strategies borrowed from authoritative traditions. Traditional authority invested in their unchanged behavior patterns has become a new cultural resource which will enable the *jamsu* to cope with changes of the society. The *jamsu* do not depend on their mythical ancestor's power on the contrary, they live giving their force to the ancestor.